



STATE OF NEW YORK | EXECUTIVE CHAMBER

ANDREW M. CUOMO | GOVERNOR

즉시 배포용: 2012년 6월 15일

뉴욕주가 성장, 생산성 및 살기에 좋은 면에서 미국 최고 10개주 안에 속한다는 미국 상공회의소의  
보고에 관한 CUOMO 주지사의 성명서

*이 보고에 따르면 뉴욕주는 지난해로부터 11개 등급의 도약을 보였습니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가 성장, 생산성 및 살기에 좋은 면에서 11개 등급을 도약해 미국 최고 10개주 안에 속하게 되었다는 미국 상공회의소의 새로운 보고와 관련해 다음의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연구에 의하면, 수출을 증대하고 혁신을 육성하며 사업체들에 확실성을 제공하고 합리적 과세를 적용하며 우수한 교육을 강조하고 건전한 하부 구조를 우선시하는 주들이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주 행정부는 뉴욕주가 모든 지역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업을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에 집중해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집중할 것입니다. 저희 행정부는 창업적 정부의 정신으로 그리고 New York Works 이니셔티브를 통해 나노테크놀로지 및 기타 성장 업계에 수십억 달러의 새로운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민간 사업 부문과 동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행정부는 소기업에 부과하는 세금을 감소하고 58년 만에 가장 낮은 중산층 가족 세율 법안을 통과시킨 것 만이 아니라, 처음으로 뉴욕주 각 지역의 특이한 강점에 초점을 둔 새로운 지역 경제 전략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주정부는 너무 오랜 동안 사업 개발의 진전을 막는 걸림돌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한 시대는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수행해야 할 많은 일이 남아 있지만, 이번 보고는 저희 행정부가 그동안 입법부와 협조하여 함께 성취해 온 훌륭한 진전 사항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라고 Cuomo 주지사는 말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아래 웹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uschamber.com/press/releases/2012/june/new-us-chamber-study-reveals-how-states-create-policies-produce-jobs> (13-14 페이지에서 주별 등급을 그리고 67페이지에서 뉴욕주에 관한 정보를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엠파이어 스테이트’의 크고 복합적인 경제는 모든 측정 부문에서 훌륭한 성적을 올렸으며, 7개 중 6개 (범주)에서 최고 25위 이내에 속했습니다. 뉴욕주는 주 총 생산량(GSP)의 신속한 확장 및 일인당 개인 소득의 성장으로 인해 11개 등급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

아래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http://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mailto: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